네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道 대응 '긴박'

도, 회의 열고 차단방역 논의
제주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양돈밀집단지 출입통제 강화
감염 여부 모니터링 검사도
원 지사 "사각지대 없어야"

24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단지 입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도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따른 전실국의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일 0시부터 제주산 돼지의 반출을 금지하고 한림읍 금악리와 대정읍 동일리 양돈밀집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 초소를 4개 추가 설치해 농가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양돈밀집지역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 모니터링 검사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시, 농·축협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 매주 2회(수, 금) 이상 도내 축산밀집지역 및 주변 도로변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14억 편성해 긴급방역약품을 구입하고 소규모 농가의 방역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공항만 방역인력 추가 배치 등의 조치도 진행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과 장비, 약품 등을 투입해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 노력 못지않게 이미 생업으로 자리 잡은 산업을 지키는 것도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산 돼지고기는 특산물 브랜드로서 제주의 경제, 관광 산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돈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전국 소비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차량, 사람, 물건 등을 통해 매개체들이 이동하면 순식간에 제주도 뚫릴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남조로 사려니숲길 탐방객 느는데 편의시설 부족… "화장실 증축을"

하루 탐방객만 2000~3000명
센터 내 화장실 비좁아 혼잡
"산림청 추가 예산 지원 절실"

탐방객들이 숲길 입구 산림청 한라산둘레길 숲길센터 내 화장실 밖에까지 줄지어서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변에서 진입하는 사려니숲길 탐방객이 많게는 하루 3000명에 이르지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부족해 탐방객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숲 체험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으로 탐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숲길 입구에 들어선 산림청 한라산둘레길 숲길센터 내 화장실이 비좁아 입구에서부터 혼잡을 빚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조로변 사려니숲길 입구에는 지난해 산림청에서 예산 5억원을 투입해 154.3㎡의 한라산 둘레길 숲길센터를 조성됐다. 센터에는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들어섰다.

비장애인 여성용 변기는 모두 4개가 갖춰졌는데, 숲길 탐방객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남조로변에서 진입하는 사려니숲길 탐방객은 지난해 70여만명이었다. 올들어서도 하루에 주중 1800~2000명, 주말에는 2500~3000명 정도가 찾으면서 여성들이 화장실 밖에까지 줄지어서 바로 맞붙은 남성 화장실 이용객들과 뒤엉키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일부 탐방객들은 센터 관리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려니숲길을 관리하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화장실 증설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산림청의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주를 찾았던 산림청 관계자에게도 이같은 상황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산림휴양부서 관계자도 "사려니숲길을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와 함께 조만간 산림청을 직접 방문, 탐방객이 급증하는 사려니숲길의 화장실 증설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도록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헌마공신' 김만일 고향 의귀서 전통 말축제

내달 5~6일 옷귀마 테마타운

조선시대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1550~1632)을 기리기 위한 전통 말(馬) 축제가 그의 고향인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10월 5~6일 이틀간 펼쳐진다.

남원읍 의귀리(이장 고행곤)는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을 테마로 한 '제4회 제주 의귀 말축제'를 옷귀마 테마타운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제는 의귀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의귀사람 김만일, 헌마퍼레이드 및 마당놀이'를 비롯 제주마 전통 밭볼리기 공연, 헌마공신 김만일 어린이 삼행시 글짓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트랙터 마차타기, 빙떡 만들기, 가족대항 콩콩말타기, 예쁜말 포토존 등의 체험행사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만일은 조선 중기 제주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마(私馬) 목장 중 가장 많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 선조 임금이 전마(戰馬)를 요청하자 500필을 헌납하는 등 국난의 위기마다 군마 1300여필을 바쳐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세 번째로 말을 바쳤던 1629년에는 역대 제주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인 종1품 '숭정대부'를 제수받았다. 이 후 김만일의 후손들은 240여년동안 제주에서 '산마감목관'을 맡아 말 사육에 힘을 쏟으며 제주마 육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행곤 의귀리장은 "국난 극복에 공헌한 김만일의 참뜻과 제주 말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의귀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며 초대했다. 문미숙기자

2019 제주愛 빠지다 ⑮ 소길리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난해 에코파티에서 진행된 마을안길트레킹. 사진=소길리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제공

"먼저 손 내밀면 간격도 좁아지겠죠"

원주민·정착주민 함께하는
'모다들엉 골앙 장터' 운영
"서로 소통·상생하는 계기"

풋감마을 소길리는 지난 2011년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산간의 작은 이 농촌마을은 가수 이효리와 뮤지션 이상순 부부가 살았던 마을로 더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정착주민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마을협의회는 올해 처음 원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소길리 모다들엉 골앙 장터'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행사는 로컬푸드 맛보기·홍보를 비롯해 음악회와 체험, 마을안길트레킹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을회는 이 행사를 계기로 원주민과 정착주민 간 활발한 교류와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진 소길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체험사무장은 "원주민과 정착주민간 소통·교류가 부족했는데, 체험행사를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획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예전 마을행사에 관심을 보여줬던 한 정착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행사를 기획하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했다.

김 체험사무장은 "천연염색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 현수막을 건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할머니, 엄마, 손녀가 찾아왔다. 정착주민이었는데 체험이 어떤거냐부터 참석하고 싶으니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하더라"며 "부족한 교류나 소통이 아쉬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마을에 대해 알아가며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회 재무를 맡고 있는 고봉수씨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보자는 것"이라며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식사나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 간격을 조금 좁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하는 행사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밑그림을 그린 것은 없다"며 "다만,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마을 행사가 있을때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걱정이 많다. 지역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만 사실 몇 명이나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운영진은 행사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소길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한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인사도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장을 열어 보려고 한다"며 "어색함 없이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니 참석해 좋은 시간됐으면 한다"고 초대장을 띄웠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공사재입찰공고
(건물 외벽도장, 창틀 코킹, 옥상 노출우레탄방수공사)

1. 재입찰사유 : 공사유찰로 인한 재입찰
2.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단지개요 : 가. 단 지 명 : 지오빌2 아파트
나.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95번길 7 (서홍동 305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122세대 (연면적 14,593.97㎡)부대 및 복리시설
4. 공사개요 : 가. 공사내용 : 아파트 건물 외벽도장, 창틀코킹 및 옥상 노출우레탄방수공사
나. 현장방문 실측하여 면적 산출하고, 실측 과실의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7.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제주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및 미장, 방수조적 공사업 (2개 업종 면허소지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 업체 ☆ **제주지역 외 업체의 경우 제주소재아파트 (100세대 이상)공사를 5건 이상 한 업체 중 도장공사업 및 미장, 방수조적 공사업 (2개 업종 면허소지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 업체**
다.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이 5억 이상인 업체 (2019년도 실적 포함)
라. 직접 당 아파트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
※ 현장설명은 당 아파트 현장방문 및 입찰서 접수 시 유인물에 의한 설명 병행
8. 입찰참가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정리)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10일 이내 발급분)
바.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사.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증명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행)
아. 입찰서(VAT별도),내역서 각 1부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제경비등 구분 합산 작성)밀봉하여 제출
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이상)
차.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미제출 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
9. 입찰 및 공사선정업체 통보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9년 10월01일(화) 오전 10시 ~ 오후5시까지 현장 확인은 필히 하되, 현장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 (도면은 이메일 발송)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나. 입찰서류 등록마감 : 2019년 10월0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010-3691-0604번으로 연락주시면 접수가능)
다. 낙찰자 결정통보 : 2019년 10월10일(목)까지 낙찰된 업체에 통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서류검토 및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 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회의를 통해 선정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최저가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
다. 입찰참가 최저가 업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 예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견적을 제시하여,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답합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 및 계약 취소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나. 공사내역서는 참고용이며 물량확인은 공사 해당업체가 현장 확인 및 도면을 검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물량오류로 인한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 업체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 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마. 계약체결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또한,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5일이내에 공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계약은 자동 해지되므로 실공사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을 지연하면 3%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 공사에 사용할 견적서 물품은 KS 동등 이상 제품으로 견적서를 작성 한다.
아. 공사방법은 교통부 건설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자. 입찰서에는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을 계상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상 원가계산서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제 경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건물외벽 도장공사 2년, 창틀 코킹공사 2년, 옥상노출 우레탄방수공사는 3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의 10%이상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762-1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25일

지오빌2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2019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는 '2019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학교(제주시 영평동 주민의 삶과 언어)'를 엽니다. 이 강좌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제주어 구술을 들으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정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제주어 구술 강독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9. 10. 7.(월)~12. 16.(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11월 11일은 쉽니다.)
■ 장소: **한라도서관 강의실** (사정상 중간에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제주도민(선착순 30 명)
- **신청 기간**: 2019. 9. 24.(화)~10. 4.(금)
- **신청 방법**: 제주어연구소 누리집(www.jejueo.999.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jejueo999@hanmail.net)으로 보내면 됩니다.
- **문의 전화**: 064-722-2203
- **수 강 료**: 없음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 **교육 내용**

구분	날짜	내 용
1	10월 7일	제주어의 이해
2	10월 14일	마을 유래로 배우는 제주어
3	10월 21일	의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4	10월 28일	들일로 배우는 제주어
5	11월 4일	주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6	11월 18일	농업으로 배우는 제주어
7	11월 25일	식생활로 배우는 제주어
8	12월 2일	세시풍속으로 배우는 제주어
9	12월 9일	통과의례로 배우는 제주어
10	12월 16일	민간요법으로 배우는 제주어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Corporation aggregate, The Jeju Dialect Institute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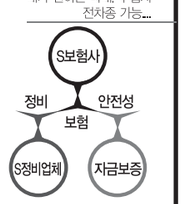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